

기획 우리고을 포천의 문화유적 (45) - 양사언 묘(楊士彦墓)

'태산이 높다하되' 불후의 명작으로 애송



최 중 규
포천명유회 회장

- 지정번호: 향토유적 제32호
- 명칭: 양사언 선생 묘
- 수량/보유종별: 1기
- 소유자(보유자): 양운택
- 소재지: 일동면 길명리 산 193
- 지정년월일/고시년월일: '86. 4. 9
- 관리단체/관리사무자: 양운택



포천시 일동면 길명리 산 193번지에 위치한 양사언 묘(楊士彦墓)

양사언 선생은 1546년(명종 1) 문과에 급제한 후 부모 내외상 6년을 제외하고는 평생 관직에 종사했다.

를 저술해서 명성을 떨치고 평창군수, 강릉부사 등 여덟 고을을 다스렸는데 가는 곳마다 선정했다고 한다.

다. 시문에 뛰어났으며 조선 전기의 4대 명필가이다. 저서로는 '태산이 높다하되'로 시작되는 시조는 불후의 명작으로 애송되고 있다.

쌓기와 시멘트 다짐으로 3단의 호석을 둘러싸고 봉분의 높이는 1.5M, 둘레는 16.2M이다. 묘역 하단에는 숙부인 음성 박씨와 간성 이씨인 두 부인 묘가 있다.

교육에세이 18

개성과 더불어 사는 삶



조 대 형
영남고등학교 교장

이 세상에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사람도 다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도 언젠가 모르게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서 구별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특징이 바로 그 사람의 개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만의 독특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정한 개성은 남과 함께 공유하면서 돌출되지 않는 자신만의 은은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남과 더불어, 남을 즐겁게 하면서도 뒤지지 않는 그 사람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사람의 흉내를 내면서 자신의 개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지금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

고 고귀한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자신의 빛깔이 무엇인지, 어떻게 채워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나 노력보다 유명 연예인들을 좋아하고 또 그 흉내를 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자신의 개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따라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물론 모방은 창조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때는 과연 그것이 내게 맞고 어울리는가를 따져보는 진지한 생각과 판단이 먼저 요구됩니다. 흉내 내기에 급급하다 보면 나의 참모습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옛 말씀에 같은 종이라도 향을 싸면 향기가 나고, 생선을 싸면 비린내가 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이 말씀은 각자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그 사람의 향기를 만들어낸다는 뜻이라 생각합니다.

제주에는 돌담이 많습니다.

제주의 이런 돌담을 가까이서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멘트의 힘으로 지탱이 된 것도 아니고 돌이 다듬어져서 사각으로 올려진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큰 돌덩어리들이 맞물린 것도 아닌데 태풍에도 끄떡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고 자연 그대로 변형시키지 않고 서로 엉켜 끼어 있습니다. 이런 돌담을 보면 아름답기도 하지만 신기하기조차 합니다.

학생 여러분! 이런 제주 돌담의 힘은 무엇일까요? 서로 의지하고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 바람이 비껴갈 자리를 만든 것입니다. 바람이 비껴갈 자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배려와 여유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주 돌담의 돌을 잘 보십시오

오.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각기 모습도, 크기도 다르지만, 놓여진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보듬어 안습니다.

여러분도 서로의 개성이 다르지만 우리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처럼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곳입니다.

학생 여러분은 모두 소중하며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와도 똑같지 않으며, 비교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제주의 돌처럼 서로 의지하고 맞물려 남을 배려한다면 왕따는 사라질 것이며 학교생활은 즐거워질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면, 올 가을에는 숙이 짙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세익스피어 에세이

안토니우스여, 시저의 죽음을 어찌할까



박 정 근
대전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안토니우스여, 그대는 황제로 군림하고자 했던 시저의 주검 앞에서 어찌할 것인가. 로마의 영광을 위해 시저를 뚫고 승리를 일구어온 영웅이 어찌 힘없이 나동그라져 있는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보상이다. 로마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시저를 살해했다는 서술이 퍼런 부루투스와 다른 원로원을 앞에서 시저의 심복이었던 안토니는 시저의 시체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한다. "아, 위대한시저! 이렇게 비참한 꼴로 쓰러져 계시구려? 당신의 모든 정복, 영광, 전승, 전리품들은 이렇게 작게 오그라들어 버렸소? 명복을 빕니다." 부루투스의 연설과 더불어 세익스피어가 창조한 명연설가의 하나로 손꼽히는 안토니우스는 혁명을 일으켜서 자신의 최대의 후원자인 시저를 살해한 자들 앞에서 그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을 표한다. 부루투스를 위시한 혁명가들의 칼날이 언제 자신의 가슴을 덮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나마 용기 있는 발언이 아닐

분명 대단한 줄타기를 하는 정치가임에 틀림이 없다. 그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것을 보고, 부루투스는 시민들 앞에서 행할 연설에서 절대로 자신들을 비난하지 말 것과 그의 추도사 후에 연설의 기회를 허락받는다. 그는 시저의 시체 곁에 홀로 남아 살육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복수를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앞으로 로마를 휩쓸 골육상쟁의 내란에 대해서 한탄한다. 시저의 살육자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무기 삼아 적당히 무마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목적이 합당하더라도 수단이 정당하지 못할 때 더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연단에 올라간 안토니우스는 부루투스와 약속한 대로 그들에 대해서 협담을 양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부루투스가 '고결한 사람'이라고 반복해서 칭찬을 한다. 하지만 그들이 시저를 살해한 명분인 '야심'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음을 밝힌다. 그는 관중들에게 시저가 전승으로 생긴 수많은 노예를 로마로 데려와 몸값으로 로마 국고를 늘린 것이 야심이라고 반문하며 류퍼럴 축제 때 자신이 바친 왕관을 세 번이나 물리쳤던 일을 상기시킨다. "민인이 울면, 시저도 울었소. 야심이란 그보다는 냉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대도 부루투스는 시저가 야심가라는 거요. 그런데 부루투스는 고결한 분이요, 여러분도 다들 보셨겠지만, 지난 류퍼럴 축제 때 내가 세 번이나 왕관을 바쳤는데.. 시저는 세 번 다 물리쳤소. 과연 이것이 야심이었소? 하나 부루투스는 시저가 야심을 품었다는 거요. 물론 부루투스는 공명 정대한 분이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이유 때문에 시저를 애도하기를 망설이는 거요? 아, 이제 분별은 짐승한테로 도망가 버리고, 인간은 이성을 잃어버렸단 말인가"라고 외친다. 관중들은 안토니의 말을 들어보니 도대체 시저가 무슨 야심이 있었는지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안토니는 부루투스와 의 약속대로 그를 결코 비방하지 않으면서도 시저가 야심이라는 이유로 살해되어서는 아니 되는 사람으로 충분히 인식하게 유도한다. 이제 오히려 관중들은 오히려 국가적 영웅을 살해한 부루투스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고 몰려간다.

“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

수 없다. 안토니는 시저의 시체 앞에서 그들의 칼날에 죽을 각오가 되어있다고 밝히지만 그건 매우 계산적인 속셈이 숨어있다. 적어도 명분은 살인을 저지를 자들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의 혁명적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신을 끌어들이려고 애쓰리라는 것도 이미 간파하고 있다.

안토니우스는 적들의 손을 잡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불러일으킬 자신에 대한 신망이 위태로울 것에 대비해서 또 한 번의 연기를 한다. "아 시저여, 당신의 유해 앞에서 당신의 안토니우스가 당세의 소위 가장 고결하다는 원수들의 피 묻은 손가락을 쥐고 회해를 하려고 하니 말입니다. 당신이 입은 상처자국의 수만큼 내게 눈이 있어서 그 상처에서 피가 분출한 만큼 내가 울어야 울을 것을. 당신의 적과 우정을 맺어야 하디니요, 용서해주시요, 줄리어스, 용감한 수사승같이, 당신은 이곳에 몰려, 이곳에 쓰러졌소. 그리고 사냥꾼들은 여기서 이소, 살육의 증거로, 당신의 황천길의 피에 물들인 채, 아 세계여, 너는 이 사슴이 사는 숲이었다. 그리고 이 사슴은, 아 세계여, 너의 영통이었다. 귀인들의 무리한테 사살된 사슴같이 당신은 여기 쓰러져 있구려!" 상대방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지 않으면 이런 빼어난 말을 던질 수 없다. 한 손은 회해의 악수를 던지면서, 입으로는 시저에 대한 조의를 표하며, 수려한 변명을 늘어놓는 안토니우스는

말이란 그런 것이다. 귀에 걸면 귀걸이요,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된다. 관중들은 정치가들의 말에 의해서 조종되는 경우가 흔하다. 그들의 말의 바람에 따라 갈대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세익스피어는 결코 긍정적으로 묘사하지는 않는다. 자기 뜻대로 상황이 따라 움직이고, 때론 폭도로 변해서 정치가들의 꼭두각시가 되거나 행동대원으로 전락하는 관중들이 과연 부루투스가 자신의 시저살해의 명분인 로마 민주주의를 지킬 주체적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로마의 민주주의는 단지 귀족이나 상류계층만을 위한 지배이념이 아니었을까. 요즈음 한국 사회를 살펴보면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려 싸웠던 진보적 운동가들에 대해 동정하고 심지어 국가운영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선량으로 뽑아주었던 용감한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삼팔육이라는 운동관들이 청와대의 핵심으로 국회의 핵심세력으로 성장하였으니, 가히 한국사회가 극우보수세력에서 진보세력으로 판도가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하였다. 그러나 참여정부의 몇몇 실정으로 인해 다시 시민들의 입에서는 독재세력에 대해 피부었던 목소리가 오르듯이 회자되고 있는 실정을 접하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시민들은 누구의 말에 놀아나는 세력이 아니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역사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 때야 비로소 지배자의 노예나 추종세력이 아닌 자기가 사는 공동체의 진정한 주체요, 원동력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꽃심

종합선물세트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p>꽃심고려홍삼꽃세트 홍삼꽃 1000g</p>	<p>꽃심특선봉밀1호 잡화꽃 2200g</p>	<p>꽃심기획세트1호 대추꽃차 1200g / 잡화꽃 1200g</p>	<p>꽃심기획세트2호 영지꽃차 1200g / 잡화꽃 1200g</p>	<p>GS기획세트 잡화꽃 1200g / 숯잎꽃차 1200g</p>	<p>꽃심프리미엄꽃세트1호 아카시아 1200g / 잡화꽃 1200g</p>
<p>꽃심토종고기구3호 토종꿀 1200g</p>	<p>꽃심토종고기구1호 토종꿀 2400g</p>	<p>꽃심꽃차세트 영지꽃차 1200g / 대추꽃차 1200g</p>	<p>꽃심꽃차세트 영지꽃차 1200g / 대추꽃차 1200g</p>	<p>꽃심 8호 영지꽃차 1200g / 홍삼 100 70ml x 7포, 대추꽃차 1200g</p>	<p>꽃심 4호 영지꽃차, 숯잎꽃차, 대추꽃차 x 600g</p>